

중국동인 우리에게 김윤주가 추천하는 직업 이야기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사람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방송영상콘텐츠를 해외시장에 홍보·마케팅하고 프로그램의 수출입, 배급, 라이선싱, 캐릭터 상품화 등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의 등장 배경

한류 문화가 유행하고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방송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무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사 및 배급사에 수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업무를 한다.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의 업무

1. 방송물이 제작되는 단계

사전홍보로 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등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배포하고 뉴스레터를 발송한다. 프랑스 칸느, 일본, 중국 상하이 등에서 열리는 해외 방송콘텐츠 마켓에 참여해 쇼케이스에 견본을 선보이고, 신흥 시장 개발도 준비한다.

2. 방송물이 시작될 때

1, 2회 방송분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시청률을 함께 제공한다.

3. 방송 주문이 들어올 때

바이어들과 가격과 구매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물을 공급한다. 계약을 할 때는 수출용 소재(영문대본 및 방송소재)와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협의한다.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가 되기 위한 준비

- ▶ 언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해외 출장이 많고 업무 자체가 해외 비즈니스에 해당하므로 어학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 ▶ 해외 국가들은 물론 국제 방송시장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상황을 알면 바이어의 호감도를 높이고 계약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의 특징이나 변화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IPTV와 스마트 TV의 차이점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는 식이다.
- ▶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방송콘텐츠를 판다는 것은 결국 저작권을 수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 ▶ 판매하는 대상인 방송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 ▶ 사람을 설득하고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적이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의 현재와 미래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가 근무할 수 있는 업체는 SBS, KBS, MBC 등의 방송사와 계열사, 케이블 TV, CJ E&M, 중앙방송, CU 미디어, 통신사, 그리고 배급사 및 드라마제작사 등이다. 임금수준은 각 방송사나 통신사 등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채용되면 회사에 소속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일반 회사원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방송산업은 한류 바람을 타고 부가가치산업, 국가전략산업, 미래핵심 산업으로 평가받는 유망한 분야이다. 하지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만 방송콘텐츠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수한 방송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면, 콘텐츠를 유통하는 시장도 커지고 마케팅디렉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학과: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 학과 특성

- 학과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졸업 후 진로 또한 다양하다.
- 많은 학교에서 인문계열 학부에 속해 있다.

☞ 교육 내용

- 방송, 문학,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나타내는 문화가 집약된 사회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 이 방대한 '사회의 산출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고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 능력도 함양한다.

☞ 졸업 후 진출 분야

- 기업체: 출판사, 광고대행사, 영화배급사, 연예기획사, 드라마외주제작사, 일반기업 홍보팀 등의 사무직, 사설학원
- 언론사: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 지역문화원, 박물관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커리어넷 드림레터, 2014 미래의 직업 세계(학과 편)

읽을거리: 계획된 우연으로 진로 설계하기

진로 결정에서 '우연'이란?

유명한 심리학자 존 크럼볼츠는 우리 선택의 80%가 운(fortune, 運)에 달려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연적 사건(happenstance)들이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날 사건들 중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계획된 우연'이라고 한다.

계획된 우연을 위한 행운의 법칙

법칙 ① 우연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가능한 많은 우연으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라.

법칙 ②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내게 쓸데없는 사건이나 만남은 없다. 모든 사건은 내가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된다.

(출처 : 모로토미 요시히코(2009), 「행운에도 법칙이 있다」)

도자기 공예 강사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학생들에게 도자기 작품 채점 기준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룹에는 “도자기를 50개 만든 학생은 A,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는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만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는 '양'을, 두 번째 그룹에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양'과 '질'로 나눈 이 평가에서 결과는 놀랍게도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다. '질'을 앞세우는 행동은 실수는 적지만, 일에 능숙해질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커다란 성공은 정밀하게 잘 설계된 계획과 이를 계획대로 실천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는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 즉 '사람은 수많은 기회 중 우연한 계기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진로 결정 이론을 완성하고 '작은 행동'의 힘을 강조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날마다 조금씩 행동을 하면 지속적인 발전으로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자신을 중요한 문제에 집중시킬 수 있다.

출처 :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2014),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드림레터 34호